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2. 6. 24.

정부·국회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2.6.24. 기준)

- '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를 포함하여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2.6.24.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대상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216개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54개소
- ※ 평가계획 공고일을('21.2.25.) 기준으로, 지정된 날이 1년 미만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s_seq=20220601056

안전인증 취소 공고(파이프 서포트)

- 「산업안전보건법」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s_seq=20220600919

고용노동부 장관, 에스-오일(주) 폭발사고 신속한 수습 지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19.(목) 20:5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스-오일(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 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10명(사망1, 부상 9)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하였다.
-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울산지청)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34

직업훈련기관의 자율방역지침 안내(1-1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 수칙이 조정(5.13.)되어 해당 사항을 반영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s_seq=20220501103

2022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시행 계획 공고

- 2022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우수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정부가 인증·공표하여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 '22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

* 해당 민간위탁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 인증신청대상

-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민간고용서비스

- 직업소개분야: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정보제공분야: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민간위탁사업

- 직업안정법 규정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중 '20년.'21년 2년연속 성과평가 상위(A) 등급 이상 기관만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소 성과기준 미흡기관 제외

3. 신청 및 접수기간

- 민간고용서비스 영역: 2022년 6월 10일(금) 공고 시 ~ 6월 24일(금), 18:00
- 민간위탁사업 영역: 2022년 8월 9일(화) 공고 시 ~ 9월 12일(월), 18:00

※ 영역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나의 영역만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s_seq=20220501205

산업인력공단, 기능경기 초청 연수 실시

- 23일부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6개국 78명 대상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재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5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원장 최종운)에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나미비아, 잠비아, 몽골, 인도 6개국을 대상으로 기능경기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 이번 기능경기 초청 연수는 초청국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0개 국제기능올림픽 직종에서 한국과 초청국가의 국제지도위원 및 선수가 합동훈련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또한, 공단은 초청 연수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초가 된 각종 숙련기술인 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국제기능올림픽 19회 종합우승 노후를 전수할 예정이다.
- 올해 10월로 예정된 2022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은 전 세계 62개국 1,300여명(‘22년 5월 등록기준) 선수들이 메카트로닉스, 웹 기술 등 총 63개 직종에 참여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며, 한국은 이 중 47개 직종에 참가할 예정이다. **- 중략 -**
-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능경기제도를 더욱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협력 국가의 기능경기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공단은 2018년부터 한국 중심 국제 네트워크 형성과 한국형 직업능력개발 모델 확산을 위해 기능경기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인적자원개발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국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40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추진

- 안전보건공단-지방공기업평가원 업무협약(MOU) 체결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최치국, 이하 ‘평가원’)은 5월 23일(월) 울산 소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공단과 평가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 공단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을 대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교육강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반영하고 산재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 평가원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을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1,400여개 지방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과 함께 지방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화·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과 지방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41

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 발령

-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중 사고사망자 급증 (+18명)
- 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등 운반·하역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 300인 이상 제조업체 사망사고도 급증 (+14명)
- 철강, 조선 등 사망사고 다발 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 연달아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들어 제조업 사망사고, 특히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기한: '22.5.25.~ 6.30.)운반·하역 등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 5.6. 기준 지난 3년 동안('19~'21년)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벌써 25명이나 발생하여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1/3을 상회(34.2%) 하고 있다. (전년 대비 257.1% 증가)
- 올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발생시기)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매월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4월부터 급증 추세에 있다.
-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 운반·하역 사망 사고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벌써 4건이 발생하여 주말, 휴일에 이루어지는 운반·하역 작업의 사망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 -
- (발생원인)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사고의 구체적 원인에 비추어봤을 때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험 경보 발령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48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합니다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5일(수)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1.7.1.부터 올해 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중략** -
- 이번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하면 2022. 7. 1.부터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각 50%씩 경감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 행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53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산재희생자위령탑을 찾아 중대재해 감축 의지 적극 표명

-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골든타임으로 규정, '노사정 협력 기반의 가시적인 산재 감축 성과를 낼 것' 강조
- 소규모 재정지원 사업장을 방문, 산재예방 지원 상황 집중 점검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54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5.25.)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5.25.)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점검은 중소기업(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최근 3년간 60.8%)하는 12개 기인물의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하여 집중점검하고 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16. 최근 3년간(‘19~’21년) 중소기업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다수 유발한 12개 기인물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를 전국에 배포하며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중소기업에 당부했다. 또한 12개 기인물에 대한 인지 여부, 안전조치 이행현황 등을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위험요인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업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작업 전 안전점검(TBM)은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중심으로 작업 당일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한다는 자발적인 점검과 실천 다짐의 약속이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적 안전 활동인 안전 점검 방법으로 다음의 2가지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
- (원칙1) 오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생각하라!
작업장소 주변은 어떤 상태인가?
- 내가 해야 할 작업은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는가?
-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안전한가?
- (원칙2) 안전한 작업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큰소리로 외쳐라!
- “안전대 착용”, “추락 방호망 설치”와 같이 쉽고 편하게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를 큰소리로 외치고 이를 실천하면 된다.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전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험 요소는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통해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55

물·그늘·휴식으로 여름철 열사병을 예방!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여름철(6월~8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5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50%로 전망하고 있다.
 - 최근(‘16~’21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82명이 발생했고, 이 중 29명(15.9%)이 사망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특히,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더위가 시작하는 6월부터 시작하여 7월과 8월에 집중해서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는 우선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폭염특보 상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 특히, 올해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에는 폭염으로 인해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 아울러, 6월 초에는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5.30.~6.17. 3주간)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6월부터 9월 초까지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 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늘(5.29.)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71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348명 죽거나 다쳐

- 최근 10년간('12~'21년), 총 196건 발생, 사망 165명, 부상 175명
- 최고 위험작업은「오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 작업」
-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질식 가능성 더욱 높아져
-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해야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10년간('12~'21년) 질식사고로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적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라고 할 수 있다.
- 최고 위험작업은「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작업!
-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를 유형별로 사고빈도,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식 위험작업을 분석한 결과,
-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황화수소 중독, 산소결핍)이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항목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다.
- 그 밖의 고위험작업으로는 불활성가스(질소, 아르곤 등) 취급 설비 작업(산소결핍),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일산화탄소 중독),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 작업(산소결핍), 각종 관거, 맨홀, 집수정, 탱크 내부 작업(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 등으로 나타났다.
- “날씨가 더워지면 오폐수처리시설, 맨홀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 높아져”
- 질식사고는 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계절별 질식사고 다발 작업은
 - (봄철)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 불활성가스 취급 설비 작업에서 많이 발생했고
 - (여름철)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 각종 맨홀, 집수정, 탱크 내부에서의 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양수기 가동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다.
 - (겨울철) 갈탄 등을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다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72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주요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과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점검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은 6월 3일(금)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현장 안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중대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안전임원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 또한 본사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 본격 시행중인 중대법의 핵심 사항은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건설업체의 특색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대법 현장 안착과 안전조치의 철저한 준수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94

급성중독 예방, 정확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활용에서 시작됩니다!

-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은 최근 근로자 집단중독, 화재.폭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사업장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작성하고, 자료 내용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써, 구성성분.유해위험성.응급조치요령.취급방법 등 16가지 핵심 안전정보를 담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 올 2월 발생한 근로자 집단중독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 수입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확히 작성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출번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6월 한 달간 ‘물질안전보건자료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먼저 오는 6월 1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 1만 3천 여개소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안내자료(리플릿.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어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안전보건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끝장내기”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홍보 동영상 2종을 시청하고 각 동영상 내용에 대한 퀴즈의 답을 맞이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성 요령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교육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정보전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 리플릿 및 스티커, 동영상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msds.kosha.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99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6.8.)

- 사망사고와 휴업 3일 이상 부상사고 분석했더니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집중점검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등 모든 사고 → 사고예방 위해 사업장 자체 산업재해 조사 후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당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6.8.)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점검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의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하여 집중점검 하고 있다.
-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 올해 벌써 25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조사표(휴업 3일 이상의 부상 사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부상 사고(10명 중 2명, 19.3%)가 발생한 작업이라는 이유에서다.
-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5.24. 오후 들어 제조업의 운반·하역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전반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 한 바 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한 아차 사고, 부상 사고 등 모든 산업재해를 조사한 후 결과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는 사고 현장과 주변에 남아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제거해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 다만 자체적인 산업재해 조사가 개인의 잘못을 들추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로 진행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만 가리고 마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예방’에 대한 목적이 큰 만큼, 산업재해를 정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 특히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미제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00

고용노동부장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CEO 대상 안전 경영을 당부하는 서한 전달

- 중대법에 따라 CEO가 6월 말까지 현장의 안전관리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기업 CEO 6천여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을 과거 사망사고 이력, 위험 장비 또는 공정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기업"(전체 기업 평균 위험도의 2배 이상) 6천개사를 대상으로 특별히 안전을 당부한 것이다.
-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6월 10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88명(79건)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 특히, 전반적인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한치의 긴장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 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CEO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이정식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6월은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골든 타임"임을 강조했다.
- 특히, "중대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CEO가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CEO가 중대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DNA를 바꾼다는 경영철학에 기초하여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안전을 CEO의 최우선 업무로 챙겨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토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28

지역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6.20.~6.24.) 운영

- 지역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공동 캠페인
- 소규모 기업 밀집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제2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20.부터 1주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일하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무관리가 특히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35

오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작업 중 화재·폭발사고 증가에 따른 경보발령

- 올해 오페수 처리 등의 작업에서 화재·폭발사고 급증
- 사고는 정화조·분뇨 처리작업, 폐수·액상폐기물 탱크 보수작업 중 발생
-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페수처리시설에서의 가스발생 가능성 더욱 높아져
- 정화조, 오페수시설 상부작업 시 물질제거, 주기적인 가스농도 측정 필요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들어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기간: '22.6.25.~ 7.30.)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15년~'22.6월)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 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 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사망자의 57.7%)했다.
-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2건, 사망 19명),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사망 11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37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취약직종 및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 실시

- 갑질 없는 조직문화, 값진 나의 직장생활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로부터 위탁받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약직종과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12월 9일(금)까지 전자우편 및 구글폼 등으로 상시 접수하며, 보건/돌봄/정보기술(IT)/제조업 등 취약 직종과 사회적 이슈화가 된 소규모사업장에 우선 지원한다.
-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사업장이 희망하는 일시와 장소에 전문 강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장 특성상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등)도 실시한다.
- 교육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 자율의 문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노광표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사례가 다양하고 문제제기는 지속되고 있다.” 면서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38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안전사고 제로(Zero) 심벌 지식재산권상표 특허청 등록

- 자체 안전 관련 기준설정과 활용 통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중 안전사고 예방 노력 지속해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20일(월)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 누리집을 통해 실기시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한 ‘안전사고 Zero 심벌’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 상표권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안전사고 Zero 심벌’상표는 공식 지정상표로 관리되며 향후 등록기간인 10년 동안 동일 유사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심벌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안전모를 형상화하여, 안전한 국가기술자격 시험(현장 안전사고 Zero, 사고 없는 현장 = OK)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공단은 자체 개발한 안전기준지표 체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311종목을 대상으로 안전지표인 1등급(관심)-2등급(주의)-3등급(경고)-4등급(위험)의 4등급으로 분류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또한, 공단은 그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험 평가항목에 안전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에 안전문구를 추가했으며,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 누리집에서 시험정보와 함께 종목별 안전등급을 제공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40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6.22.)

- 최근 5년 장마철(6~8월) 제조업 사망사고 증가 경향, 건설업은 감전, 제조업은 화재·폭발 사고도 많이 발생
- 경영책임자 중심의 지원과 철저한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 당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6.22.)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을 앞둔 상황에서 제조업에 집중하면서 더불어 감전과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 최근 5년 장마철(6~8월)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제조업의 사망사고(표1 참조)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건설업은 감전(27명, 45.8%), 제조업은 화재·폭발(40명, 36.4%) 사고도 많이 발생(표2 참조)한 이유에서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감전과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시하고, 과거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감전 사고) 감전은 근육의 수축, 호흡기관 등을 일으키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고 이에 기인하여 떨어짐, 넘어짐 등의 2차 재해를 유발함**
 - (발생원인) 전기 충전부·노출부 접촉에 의한 감전(직접접촉), 전기기계,기구 등 누전에 의한 감전(간접접촉), 특별고압 충전으로 근접 접근시 감전(비접촉) 등으로 발생
 - (예방조치) 전기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절연용 보호구 등 사용, 정전로 등에서 안전작업 절차준수 등 현장에서 의 핵심 안전조치를 이행
- **(화재·폭발 사고) 위험물이 혼합된 공기, 인화성 물질 등이 점화원과 접촉하여 화재 발생 및 확산·폭발 등으로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함**
 - (발생원인) 인화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를 공장 내에서 생산, 저장, 취급할 때 가스, 증기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립자 등이 있을 경우 화재·폭발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위험물과 점화원이 접촉하면서 발생
 - (예방조치) 인화·폭발성 물질에 대해 점화원 접근 차단(부가적인 방호조치 추가),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누출방지 조치, 가연성 가스감지기와 환기설비의 연동조치, 안전작업허가 및 위험지역 표시, 안전작업절차 등의 조치를 이행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49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

- **그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6월 27일(월)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훌쩍제로 운영 된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52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사업·공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 각 지자체장은 상반기 현장 안전관리 상태 확인 후 개선 조치 해야
-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 점검표를 배포했다.
- 올해 상반기에도 별목작업 중 사고(사천시청), 분노 수거·운반 중 사고(용산구청),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강서구청)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 자율점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 17일까지 지자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수행사업에서는 추락, 끼임, 깔림, 화재 사고가 각 1건 발생했으며, 발주공사에서는 추락(5건)과 끼임(3건)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56

“안전보건 데이터가 힘이다”

- 안전보건공단, 데이터 기반 안전보건 선도기관 선포식 실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 이하‘공단’)은 6월 21일(화) 오전 10시, 데이터 기반의 안전보건 서비스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데이터 안전보건 선도기관 선포식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기관장 주관하에 데이터 비전(“디지털로 소통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선포했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고 활용하는 안전보건 서비스 선도기관으로의 도약 의지를 보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선포식에서는 “데이터는 힘이다”라고 강조한 안중주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단 데이터 운영 실태 공유·점검, 데이터 기반 안전보건 서비스 3대 추진전략과 행동 방침 선포의 순으로 진행됐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38

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도 도입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전자문서 발송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시스템을 ’22.5.30.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매년 1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 공단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지원으로 도입하였다
-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38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 [5/13, 고양] 탈락하면서 떨어진 슛크리트에 맞음
- [5/14, 당진] 탱크로리 상부에서 떨어짐 (2.4m)
- [5/14, 고양] 자재 인양 작업 중 5층에서 떨어짐
- [5/10, 거창] 지붕 수리 중 떨어짐 (4m)
- [5/13, 서울] 열려 있던 맨홀에 빠짐
- [5/15, 평택] 화물차로부터 떨어진 H빔에 맞음
- [5/18, 경주] 거푸집에 깔림
- [5/18, 보령] 철제펜스와 롯데카 사이에 끼임
- [5/14, 진주] 넘어지는 파렛트에 깔림
- [5/19, 함안] 굴착기와 벽 사이에 끼임
- [5/19, 서울] 승강기 상부에서 떨어짐
- [5/19, 울산] 작업 중 폭발
- [5/19, 거창] 적재함 사이에 끼임
- [5/20, 고성] 굴착기에 부딪힘
- [5/20, 천안] 하강하는 리프트 구조물에 끼임
- [5/23, 서울] CCTV점검, 수리 작업 중 떨어짐
- [5/21, 대구] 리프트 수리 중 리프트 운반구에 깔림
- [5/23, 금산]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 (13m)
- [5/23, 포천] 암석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7m)
- [5/24, 광주] 붐대가 꺾이면서 깔림
- [5/26, 진안] 낙하한 교각 구조물에 깔림
- [5/26, 울산] 성형기 금형 사이 끼임
- [5/26, 대구] 공구 파편에 가슴 맞음
- [5/27, 산청] 페이로더와 차량 사이 끼임
- [5/30, 인천] 스키로더에 깔림
- [5/30, 함안] 공장 내 화재·폭발 사고
- [6/1, 용인] 지반 붕괴로 펌프가 붐대가 넘어지면서 맞음
- [6/1, 인천] 흙을 담은 굴삭기 버킷이 떨어지면서 맞음
- [6/1, 광양] 크레인의 인양물이 탈락되어 맞음
- [5/28, 창원] 작업 중 차량에 부딪힘
- [6/2, 홍천] 과압 배관이 튕겨져 맞음
- [6/2, 부산] 사다리에서 떨어짐
- [6/3, 창녕] 작업 중 떨어짐
- [6/7, 옥천]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
- [6/4, 안동] 수직하강하는 슬라이드에 끼임
- [6/7, 화성] 화학물질 (톨루엔) 소분 중 화재
- [6/8, 상주] 조형기 금형 내부 청소 중 끼임
- [6/8, 성주] 후진하는 굴삭기 뒷바퀴에 깔림
- [6/12, 제주] 비계에서 떨어짐
- [6/12, 화성] 지붕 상부에서 떨어짐
- [6/12, 서천] 작업 중 전주에 닿아 감전
- [6/12, 완도] 작업 중 달비계에서 떨어짐
- [6/14, 서울] 주차타워에서 떨어짐
- [6/17, 당진] 트레일러 차량에서 떨어짐
- [6/17, 화성] 회전하는 롤러에 끼임
- [6/20, 고양] 회전하는 혼합기에 몸 끼임
- [6/22, 서울] 외벽에서 작업 중 떨어짐
- [6/22, 인천] 떨어진 목재에 맞음
- [6/23, 광양] 덤프트럭 언덕 아래로 떨어짐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중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25기관 ([붙임] 참조)
 - 지정기관 중 2021년도 정기 진폐정도관리를 받지 않은 기관
 - 정도관리 인정서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지정 기관
 - 문의사항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부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052-703-0863 (홍부방사선)
052-703-0857,0866 (폐활량)
- [붙임]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1부.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29829&article.offset=20&articleLimit=10>

202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적합기관 공고

- 대상기관
 - 202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를 수행한 기관
 - 문의사항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부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052-703-0863 (홍부방사선)
052-703-0857,0866 (폐기능)
- 첨부 : 202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결과 목록 1부.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3274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제26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품평회 수상작 알림

• 『제26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품평회 심사 결과를 첨부와 같은 수상제품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3290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실시결과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및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29885&article.offset=10&articleLimit=10>

주요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과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점검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은 6월 3일(금)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현장 안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중대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요 >
 • 일시, 장소: 6.3.(금), 14:30~16:30, 비즈허브(서울 중구 소재)
 • 참석자: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16개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 17명
 * 대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디엔이앤씨, 롯데건설, 부영주택,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효성중공업 <가나다順>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3274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인도네시아에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전파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도 발전 경험 등 공유 예정-
 □ 안전보건공단(KOSHA) 송병춘 경영이사는 5월 3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간디 술리스안토(Gandi Sulistiyanto) 대사와 면담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면담에서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을 위하여,
 - 기존 타 개도국 정책자문 추진 사례 및 ODA(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 인도네시아 정부의 PCP(Project Concept Paper:사업개요 설명문서) 제출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현지조사 실시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면담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노무관 공단 방문 시 요청한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1970년 제정) 개정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은 사업심사를 거쳐 ODA(국제개발협력)사업이 결정되면, '24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ODA 사업의 일환으로,
 •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체제 구축 지원, 체험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미얀마('13년)·몽골('14~'15년)·캄보디아('2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지원, 필리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정비('12년), 베트남 하노이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센터 건립('16년)
 □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5년도부터,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공무원들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한대사관 및 노무사무소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공단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간디 술리스안토 대사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선진화된 안전보건제도와 경험이 인도네시아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3272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산업현장 안전, 우수방호장치·보호구로 지킨다

- 안전보건공단, 안전제품 품평회에서 대상(大賞) 등 8개 제품 최종 선정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우수한 안전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제26회 방호장치, 보호구 품질대상(大賞) 품평회」에서 최종 8개 제품이 선정되었다.
 - 이번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에서는 총 29개사 42개 제품이 출품되었으며, 최종 2개 부문에 8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었다. □ 이번에 대상을 차지한 ‘(주)유비마이크로’의 ‘복합 가스감지기’는
-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현장 안전관리자의 가스안전 관련 안전 정보 수집 기능*이 뛰어나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 * LPWA(Low Power Wide Area: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LoRa(Long Range) 무선통신기술 적용(통신거리가 10 km 이상)
- 또한 산업현장의 질식 및 폭발 가스 등 유해가스 5종에 대한 감지가 가능하며, 무선 중계기능 및 장비 자체 알람, 디스플레이 기능이 내장되어 유사시 통신장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 공단은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 오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기간 중 시상식을 개최하며, 수상제품에 대한 전시, 홍보책자 발간, 공단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3300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 정부 제출

- 법 시행 후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정수사로 현장 혼란 및 기업 경영부담 가중
- 시급히 보완입법이 추진되어야 하나, 당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 우선 건의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efplaza.com/web/pages/gc79582b.do?mnuid=gc79582b&bbsid=0001&nttid=17225&bbsFlag=View&pageIndex=3&searchCnd=0&searchWrd=>

경총,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 개최

- 이동근 경총 부회장, “경영층의 안전리더쉽 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안전문화 구축의 필수 요인” 강조
- 함병호 교수, “중처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해 기업들 최선 다해야”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efplaza.com/web/pages/gc79582b.do?mnuid=gc79582b&bbsid=0001&nttid=17249&bbsFlag=View&pageIndex=3&searchCnd=0&searchWrd=>

한국산업보건학회

2022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학회 주관 세미나 참여방법 안내(7월 7일)

- 일시: 2022년 7월 7일(목)
- 장소: 오프라인(킨텍스 제2전시장) / 온라인
- 참가방법: 온라인/오프라인(오프라인의 경우 별도 신청 ~06.30(목) 18시 30분까지, 인원제한 100명)
- 홈페이지: 2022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홈페이지 (safetyhealth.or.kr)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iha.kr/main/community_view.htm?uid=1703&tbn=news
<https://www.safetyhealth.or.kr/default.asp?tcode=>